

이기준이라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<채널예스> 웹진에 쓴 글을 볼까? ‘아름다움에는 쓸데없음에’가 제목이야. 그가 절친인 노바에게 이렇게 물었대.

“넌 쓸데없이 무슨 돈을 옷 사는 데 그렇게 쓰냐?”

“쓸데없이? 인간이 만든 쓸 만한 것들은 다 쓸데없는 일인데? 책, 영화, 음악, 미식, 패션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. 문화란 그런 거야.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인데 쓸데없다니! 쓸데없는 일에 정성을 들이는 행태야말로 인간다운 특성이지.”

수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도 그저 먹고 쉴 틈만 나면 동굴에 벽화를 그리지 않나, 별별 장신구를 만들었잖아. 인간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예쁜 쓰레기를 즐기는 존재야.

얼마 전에 빈필 오케스트라가 내한공연을 했어. 입장료가 43만 원이야. 두 사람이 가면 86만 원. 가장 아끼는 좋은 옷 입고는 나란히 앉아서 두세 시간 동안 말도 안 하고 앞만 쳐다봐. 어찌 보면 세상에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딴겠어?

음악이야 당연히 좋았겠지만, 정말 그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2,000명 관객 중에 몇 명이나 될까? 드문 기회라니 그냥 한번 가본 것 아닐까?

안 해도 되는 걸 사람들은 참 많이도 해. 그런데 그 수요를 발굴하면, 그게 더 큰돈을 벌어줘. 이게 ‘쓸데없음의 경제학’이야.